

고창, 생물다양성 증진 공로 '대통령상'



도시·산업화 과정에서 유휴지 나무식재 등 자연과공조높이 평가

고창군이 '생물다양성 증진' 유공으로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 사업은 환경부가 주관하고 있으며 고창군은 현명한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운곡습지·사르습지 개선지역 복원, 생물다양성 증진 및 복원,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브랜드 인증사업, 생물권보전지역 학생교육사업 등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기반 마련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서식지 훼손과 기후변화 등으로 생물다양성 감소현상 가속화에 따른 유휴공간을 활용한 녹화와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유휴지 나무식재사업, 벗짚존치사업, 외래생물 퇴치사업, 철새 먹이주기사업 등을 높이 샀다.

또한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됐던 고병원성 AI발생과 관련해 가금류와 야생조류 간 AI 확산방지를 목적으로 동립저수지를 중심으로 24의 먹이주기를 실시하면서 35만 마리 이상의 가창오리가 큰 피해 없이 안정적으로 월동하고 복상할 수 있도록 기여 한바 있다.

박우정 군수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 추구하는 기본 목표는 생물의 다양성 증진과 지역사회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루는 것이고 이는 청정한 자연을 지키며 주민이 행복한 고창을 만들고자하는 고창군의 목표와도 같다"며 "앞으로도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을 가꾸고 지키며 이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고창=신동일기자·sd@